



놈펑이들의 10월

—라온아띠 17기 캄보디아
프놈펜



길거리 음식이 맛있는 이곳은 **캄보디아**

꼬마(진호)는 아침마다 꿀빵을 기다리고 니꼬(성열)는 아이스크림을 2개씩 먹는다.
레잉(은선)은 뚝 엄빠으가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며 발길을
멈추고 뽀쌐이(지원)는 메뚜기 튀김이 그렇게 맛있다고 한다. 메뚜기튀김이
간장치킨맛이라고?



캄보디아에 온 지 한달이 지난 10월은 크메르어가 늘어가고 대화를 시도하는 우리 시장에서도, 식당에서도, 새로운 만남에서도 크메르어로 어느정도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10월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지만 메인으로 캄보디아 YMCA 학생들에게 한국어수업과 영어수업, 플레이그라운드, 청년들과의 활동을 하였고 한국어 수업으로 니꼬(성열)와 꼬마(진호) 영어수업으로 레잉(은선)과 빼싸이(지원)가 담당하게 되었다.

Cambodia YMCA Learning Center



한국어 수업하는 **니꼬**와 **꼬마**
 10월부터 시작되는 첫 수업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흥미로운 게임과 함께하는 한국어수업
 우리는 한류를 전파하러 온 것일까?



영어수업 하는 레잉과 뽀싸이
놀이를 통해 배우는 영어
레잉의 캄보디아 뜻은 “놀다” 라는 뜻인데 아이들과 잘 놀고 있는 것 같다.



매주 화요일 체육시간이 주어졌다.
체육시간에 축구장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뛰며 공놀이를 하였다.
내생에 가장 뜨거운 날들이란 이런 것일까?
햇빛이 짹짹 내리쬰어 땀도 많이 흘렸던 날이다.



주말에 액티비티로 아이들과 함께 동물원에 다녀왔다.
우리가 준비했던 동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추석 (Thanks giving day)



우리는 한국의 추석을 맞이하여 잡채를 만들어 캄보디아 YMCA 선생님들과 나누어 먹었다.



추석인데 우리도 즐기자!
아띠들과 함께하는 윷놀이 대항전
참가비는 1달러



우리가 만든 윷판과 윷은 한국어 수업에서 아이들에게도 사용되었다.

Play-ground



캄보디아 YMCA의 야외공간을 우리들이 기획하여 꾸미는 프로젝트를 하였다.
벽화작업을 시작으로
어떤 변화를 주어야 아이들이 놀기 좋고 즐거워 할까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다.



플레이그라운드에는 내부와 외부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내부 놀이터 매트교체와 울타리 설치, 외부 벽화로 변화를 주었으며 추가된 변화는 다음달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10월 완성된 플레이그라운드

Activity for Waste Management with Youth



우리들은 캄보디아 청년들을 만나 캄보디아 쓰레기의 심각성을 듣게 되었고



쓰레기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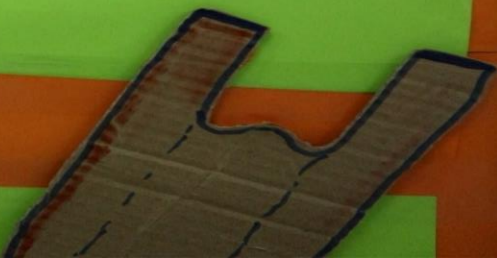


2부활동으로 박스를 이용하여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들어보자 하여



3팀으로 나누어 음식물쓰레기, 캔, 플라스틱 3가지 주제로 팀마다 개성을 살려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សំបក ចេក, សំបកទំនៀមស្លឹកឈើជ្រូក, ទឹកស្រា ជាអ្វីដែលគួរចងចាំ :



↓ ចំណុច : ↓

ខ្ញុំត្រូវការប្រើប្រាស់ ឥដ្ឋ កំប៉ុង
I need cans. ... ០០





완성된 우리들의 쓰레기통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Activity for Elderly People with Youth



우리들은 캄보디아에서 어려운 환경의 노인들을 돕는 활동을 하였다.



우리가 방문했던 Elderly People들이 사시는 마을의 모습이다.
사진만으로도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 수 있듯이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아이들은 쓰레기 물을 밟으며 뛰어 놀고 동물도 쓰레기를 먹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했던 할머니의 집안의 모습이고 바닥에 물이 차서 고여 있었다.



눔펍이 팀은 캄보디아 청년들과 함께 보수공사를 시작했다.



바구니에 흙을 담아 서로에게 옮기고 물이차는 곳을 흙으로 채워 넣었다.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할머니가 청년들과 우리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다.





우리들은 청년들과 함께 다른 할머니 댁에 방문하였다.



거름을 만들고 씨앗을 심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들은 청년들과 함께 마을주변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였다.



Explore for Phnom Penh



YMCA스텝들과 프놈펜의 저녁 life를 즐겼다.
공원에서 돛자리를 펴고 저녁을 먹고 작은 놀이공원과
왕이 거주하고 있다는 로얄펠리스를 구경했다.



크메르어 수업이 끝나고 캄보디아 YMCA 스텝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캄보디아의 유명한 라면 집이고 그 이름은 서울이다.

우리들은 매콤하면서도 특유의 맛이 일품인 서울에 매료되었다. (진짜 또 먹고 싶은 미할)

Trip in Kampot



우리들은 YMCA 스텝들과 함께 **Kampot**으로 여행을 갔다.



제대로 휴식을 즐기는군..
이곳은 Kampot에 있는 **Kep Beach**



Sea food와 함께 마시는 맥주는 꿀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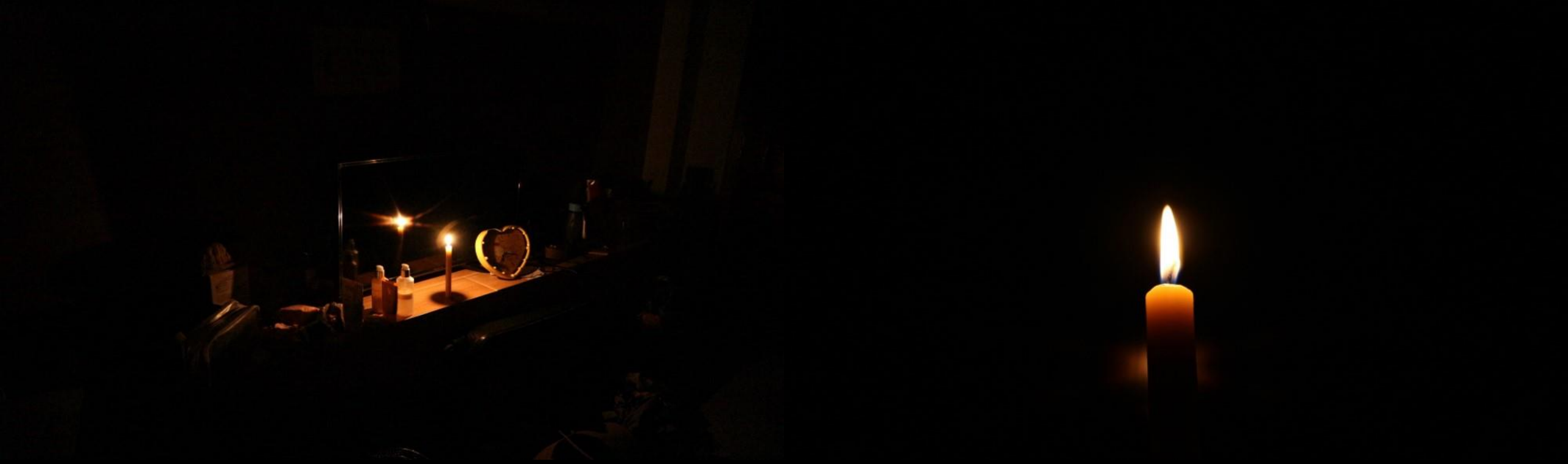


물놀이는 당연하고 단체로 공놀이까지!



즐거웠던 Kampot 여행
다시 일상으로!

놈평이's Life Story



프놈펜에 불이 꺼졌다. 발전기를 돌리지 못하는 집들은 모두 정전이 되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촛불로 생활해야 했다. 전기의 소중함을 매번 깨닫는다.
저번달에는 물이 끊기더니 이번에는 전기가 끊겼다.



전기가 끊겨도 수업은 진행된다.
잘 보이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



놈펍이팀 꼬마의 생일 날, 너무 좋아 보인다.
“생일 축하 합니다” 노래가 나오자 신난 꼬마



눔펍이팀 꼬마의 생일날, 팀원들과 함께 밖에서 저녁을 먹었다.
역시 꿀맛이었다.

Halloween



스파이더를 그리는 니꼬와 깜찍한 아이들
Face Painting으로 할로윈을 즐겼다.



다들 너무 못생긴 거 아니니?



꼬마와 싸우는 스파이더맨





할로윈을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10월은 마무리가 되었다.

$$\frac{4}{12} \sqrt[12]{\frac{1}{0}} \cdot 01 \cdot 0101 = 71$$

10월 농평이 레잉-은선

캄보디아에 적응을 한 건지, 정말 가을이 온 건지 날씨가 선선하니 바람도 불고 참 좋다.

나에게 10월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법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어떻게 하면 아무런 오해 없이 내 솔직한 마음, 내 진심이 전해질까 수없이 많이 고민하며 생각했고 표현하려 노력했다. 용기 내어 표현했던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

‘레잉’이라는 이름처럼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또 아이들과도 열심히 놀았던 10월이다. 남은 시간도 이름에 걸맞게 더욱 열심을 다해 놀아야겠다.

10월 농업이 배사아-지원

아이들의 미소는 누구보다 밝았다.
서투른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달려오는 아이들.
덕분에 하루가 기분이 좋았고 일주일이 행복했다.
서투른 솜씨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르신들
을 돕기도 하고, 운동장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그래도 그들은 언제나 웃어줬고 고맙다고 말해줬고
수고했다고 응원해줬다.
서투르게 채워간 나의 10월이 나만의 의미가 생겼다.

10월 농평이 꼬마-진호

나에게 10월은 참 힘든 달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뜻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정적인 소모가 많이 심했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세세히 적고 싶지만 그렇게 적게 된다면 글이 너무 두서가 없는 글이 나올 것 같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풀려고 하니 너무 힘들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하는 일 조차도 다 부정적으로 보이니까 내 스스로가 많이 피폐해지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럴수록 팀원들에게 내 속에 있는 말들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팀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폐를 끼쳤다. 그런 하루가 계속 되니까 점점 나약한 상태로 빠졌다.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같이 외식하는 날에 팀원들에게 나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다. 팀원들이 이를 이해 해주니까 고마웠고 미안한 감정이 많이 들었다. 이번 계기로 팀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반성을 하게 되었다. 10월을 한줄평으로 얘기 한다면 고진감래 같은 삶이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나니 행복했던 순간들이 나에게 왔기 때문이다. 이는 사진으로 확인 할수있다. ㅎㅎ ☺

10월 농평이 니꼬-성열

10월 첫 수업에 들어가기 전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한국어를 흥미있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많았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아이들은 L1, L3, L6 아이들이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L1은 초등학교 1~2학년 L3는 초등학교 3학년, L6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이였다 첫 2주간은 한국에 대한 소개와 한국을 알리고 아이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게임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였다. 빙고게임을 하기위해 숫자를 가르쳐 주었는데 아이들이 곧잘 따라하고 습득력이 빨라 가르치는데 재미가 붙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했다. L1과 L6의 습득력 차이는 확연하게 달랐고 ‘현지 크메르어를 배우는 L1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과 함께 수업방식을 바꾸고 매 수업시간 마다 어떻게 놀아야 하나 라는 고민이 생겼다 이런 고민들은 앞으로는 수업을 준비하면서 매번 해야 하는 고민인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세상 모든 선생님들을 존경하게 되었다. 실제로 선생님을 해보니 쉽지 않았다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 공부를 하지 않으려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하지 않으려는 친구들을 볼때마다 가르쳐 줘야 겠다는 생각보다는 짜증나고 의욕이 떨어졌다. 하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수업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일어서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

10월 농민이 니꼬-성열

이곳 캄보디아에서 빵을 팔거나 사탕수수음료(뚝 엄빠으), 아이스크림 등 오토바이를 타고 판매하는 것이 다양하지만 나는 아이스크림이 가장 맛있는 것 같다. 콘에 멜론 맛나는 아이스크림에 연유를 뿌려 주시는데 더울 때 아이스크림을 먹다 보면 하나가지고는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2개씩 사 먹는다.

10월 청년활동으로 쓰레기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 엘더리피플 마을에 가서 쓰레기를 보는 순간 너무 심각하다고 느꼈다. 쓰레기 물을 맨발로 밟고 지나가는 아이들과 쓰레기를 먹는 닭을 보면서 우리가 먹는 계란이 쓰레기를 먹은 닭의 알 일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에 잠긴 쓰레기가 너무 많아 청소를 해볼 엄두가 나질 않았고 유튜브에서 봤던 해변의 기적이 떠올랐다. 누군가 문제를 인식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쓰레기를 주운결과 쓰레기해변에서 깨끗한 해변으로 되었다는 내용인데 정작 나는 문제를 인식하고도 선뜻 쓰레기를 주워 보자 라고 나서질 못했다.

10월 농평이 니꼬-성열

컴퓨터를 하다가 유튜브에서 국내훈련 영상을 보게 되었다. 모든 팀들의 영상을 본 후 나는 과거를 회상하며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개월전이라며 놀랐다 영상을 보면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들이 펼쳐지면서 책을 빨리 읽는 것 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현재 캄보디아 프놈펜에 살고있다 이 또한 미래에 나는 과거의 나를 회상하면서 캄보디아가 그립고 생각나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캄보디아에서 못 보던 것들이 보이고 모든 것들이 흥미롭게 보인다.



끝나지 않은 봄방학이이기
11월도 기대해주세요